화엄, '함께 살자'는 가르침

현불논단



무상 법현 스님
열린선원 선원장

국민들의 뜻을 대신해 의견을 모으고 결정해서 실행할 대표를 뽑는 총선이 다가온다. 지역사회, 광역사회, 국가, 지구촌의 내일에 영향을 미칠 나의 대행자를 뽑는 중요한 일이다. 붓다와 조사들의 가르침을 적용하려 노력하는 불자(승려, 신도)들은 어떤 사유를 하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할까?

말이 말씀이 되고 가르침이 되고 좀 높여 경(經, sutra)이 되고 전(典, canon)이 된다. 말로 하면 흩어지니 글로 썼다가 지운다. 그림으로 그리면 글 몰라도 조금 알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이래저래 바뀐다. 그래서 흩어버린다. 돌가루 긁어내서 그리는 그림인 만다라를 그리는 티베트 승려들을 보았을 게다. 그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다가 곧 지워버리는 까닭을 아는가? 말이나 글은 모으면 뜻이 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흩어져 뜻을 유지하지 못하니 흩어버린다.

일본 나가노 젠코지(善光寺) 충혼당 지하 박물관에 달라이라마와 함께 간 승려들이 그린 만다라는 아직까지 보존 전시하고 있다. 까닭이 있으면 보존한다. 한국 사찰에서 큰 행사 또는 천도재에 도량(법당)에 써 걸었던 번(幡)들을 태우는 것도 같은 까닭이다.

만트라보다 더 힘 있는 것이 무드라(mudra)다. 신라 문무왕 때 당나라가 쳐들어오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 나라도 작고 군대도 적고 무기도 시원치 않아서였다. 훌륭하신 불보살님을 따

총선 앞두고 한국사회, 갈라치기 만연
가름은 스스로의 프레임에 갇히는 일
꽃잎 모여 꽃 이루듯 함께 해야 산다

르는 고승인 명랑(明朗) 법사를 청해 방법을 물으니 문두루 비법을 활용해 대군이 감히 넘볼 수 없게 서해바다에 커다란 풍랑을 일게 했다. 이때 '문두루(文豆婁)'가 '무드라'다. 요즘 우리는 결인(結印) 또는 수인(手印)작법이라 한다. 불상이나 탱화를 조성해 큰스님을 모셔서 점안(點眼) 또는 개광(開光)을 한다. 또, 천도재를 지낼 때 병풍 앞에서 수인, 결인 작법을 시행한다.

영화 〈나랏말싸미〉에서 사찰 건립 불상점안과 왕후의 49재를 봉행하면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한꺼번에 했다. 본래 동시에 하지는 않는다. 팔만대장경판을 달라고 떼쓰는 일본 승려들에게 한글 만든 신미대사와 제자들이 알아듣기 힘든 말을 하면서 제압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것이 만트라 작법이다. 가르침이다. 말씀으로 또 글로, 그림으로 또 동작 표정으로 모두 다 아울러 진리·가르침·말씀·말을 나타내고 실천하고 싶은 마음을 다들 가지고 있으리라. 개인의 일도 있고 겨레, 나라의 일도 있다.

우리 겨레가 많이, 자주들 읽고 외우며 전하고 실천하는 가르침이 한둘은 아닐 것이다. 한국불교에서의 가르침을 꼽자면 화엄이리라. 화엄사상은 우주의 모든 사물은 그 어느 하나도 홀로 있거나 홀로 일어나는 일이 없고 모두가 서로의 원인이 되며, 대립을 초월하여 하나로 융합하고 있다는 법계연기의 개념을 기초로 하고 있다. 법계연기의 세계는 그 자체로 부처의 자비가 충만한 연화장 세계이다. 화려한 장엄을 한 송이 꽃이라 하니 하나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찬찬이 살펴보면 한 잎 한 잎이 모여서 커다란 한 송이 꽃을 이루듯 각기 다른 꽃잎 같은 사람들이 겨레, 나라를 이룬다. 그러니 각자 행복하고 자유롭게 잘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면 하나로 같은 '함께'가 된다. 시대의 외적은 가름이요, 갈라치기, 가름의 틀(相, frame)에 스스로 갇히는 것이 아닐까 잘 살펴보자.

유산의 시대가 온다

〈遺産〉

세간과 출세간



이상근
(재)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수년간 '문화재' 정책이 급변하고 있다. 최근의 사례로는 1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5월에는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뀐다. 배경은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어 '문화재보호법'을 대체하기 때문이다.

1월 30일 열린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주최 불교대축전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역시 "오는 5월 개편되는 국가유산청 안에 종교유산협력관을 신설해 불교 유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은 2022년 '문화재(文化財)' 용어를 공식 폐기하고 세계적인 흐름에 맞게 '유산(遺産, Heritage)'으로 전환하고 국가의 유산으로 '자연', '문화', '무형'으로 정립하기로 한 결정이 배경이다.

앞서 2021년에는 '국보 1호 숭례문' 등의 관리번호를 폐기하고 '국보 숭례문'으로 명명함으로써 관리의 편의성보다는 유산의 가치를 존중하도록 했다.

사실, 문화재라는 용어를 쓰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뿐이다. 일본은 1950년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면서 재물적 관점을 중심에 뒀고, 일본의 법을 모방해 1961년 제정한 한국의 문화재보호법

올 5월, 문화재청→국가유산청 변화
문화재 아닌 '유산' 체재로 전환돼
유산 보존 점 단위서 면으로 확장
종합적 보존 중요한 불교유산 '유리'

도 유산을 사물화, 대상화함으로 인격적 가치가 훼손당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사람에게 전승되는 무형유산에 있어 '무형문화재 몇 호'라고 관리하는 것은 인격 말살이라는 반발을 불러왔다.

문화재는 유산의 전체 역사에서 점(點) 단위로 분리하여 보관하겠다는 논리이고 이는 과거 약탈을 일삼은 제국의 입장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유산은 역사적 배경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이제는 개별 단위인 점이 아닌 출처와 불가분인 면(面)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이로써 유산의 시대가 새롭게 열리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세계유산 등재 10위 국가이다. 총 55건의 세계(자연, 문화)유산, 기록과 무형유산이 등재되어 있다. 이 중에 불교유산은 해인사 장경판전, 석굴암 불국사, 산사 등 3건 10곳이다. 지난해 미국이 유네스코에 재가입함으로 회원국은 194개국인데 한 건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지 못한 30여 나라가 있다는 점에서 불교유산의 위상을 알 수 있다.

이같이 세계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는 불교유산은 문화재의 시대가 아닌 국가유산의 시대에 가장 부합하다. 따라서 점 단위 보호정책에서 자연과 역사가 있는 면 단위로 확장되고, 사람의 이야기를 담는 시공간(時空間)으로 확산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22년 시행된 역사문화권 특별법으로 신라, 백제, 가야, 마한의 불교 문명의 가치발굴과 확산을 통해 문화포교를 확대하고 문화 진흥을 이루는 일이 필요하다.

社 說

'종교 감수성' 부족했던 尹대통령 선물

2020년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불교계에 황교안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명의의 선물이 도착했다. 선물을 열어본 스님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 안에는 소고기 육포가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황교안 대표가 사과했지만, 평소 독실한 개신교인으로 알려져 있어 비판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2024년 1월 똑같이 설 명절을 앞두고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이 불교계에 보낸 선물이 문제가 됐다. 선물은 차례용 백일주, 유자청, 잣, 소고기 육포 등으로 구성됐는데, 불교계를 위해선 특별히 아카시아꿀, 유자청, 잣, 표고채를 준비했다. 그러나 선물을 담은 상자에는 묵주를 들고 있는 여인, 십자가, 교회, 성당 등 기독교를 상징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 논란이 됐다. 동봉된 엽서에는 기독교 기도문이 담겨 논란은 가중됐다.

문제가 불거지자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사과의 뜻을 전하며 진화에 나섰다. 진우 스님은 대통령실 성의에 이해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2020년, 2024년 벌어진 두 사건은 해당 종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아서 생긴 문제다. 다종교 시대에 공공영역에서 '종교 감수성'은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더군다나 앞으로 한국사회는 종교인보다 무종교인이 많은 탈종교사회로 종교 감수성은 더욱 필요하다. 소록도 한센인의 아픔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종교적 상징물과 기도문까지 내보이며 정부가 부각시킬 이유는 없다. 공공영역에 디테일한 '종교 감수성'이 요구된다.

교구 중심 복지시스템 구축 환영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하 조계종복지재단)이 교구별 복지재단 운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불교사회복지 역량 강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조계종복지재단은 1월 29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복지재단 미설립 교구본사를 대상으로 법인 설립을 추진, 교구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재단의 계획은 조계종 37대 집행부 핵심사업 중 중점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조계종복지재단에 따르면 현재 재단이 위탁하고 있는 복지시설은 전국 185개소다. 이중 100여 개의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재단에서 직접 담당하며 그 부담이 가중돼 왔다.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한 지역 복지 토대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복지재단은 교구본사의 법인 설립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25개 교구본사 중 현재 15개 교구본사가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나머지 10곳의 미설립 교구본사에 복지재단 설립을 지속적으로 독려하다는 게 조계종복지재단의 계획이다.

저출산 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지방에서는 복지 사각지대가 수도권보다 훨씬 다양하게 존재한다. 교구본사 복지재단들은 이 같은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가 될 수 있다. 이는 대승불교의 가치인 자리이타를 실천하는 것이기도 하다. 교구본사 중심으로 한 복지시스템 구축이 신속히 이뤄지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